

# 군산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효자 노릇

### 상품권은 올해 발행액 510억원 중 355억원 판매

지역경기 부양의 기대를 모았던 '군산사랑상품권'이 지난 9월 3일 유통이 시작된 이후 주력산업 붕괴로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액 510억원 중 355억원이 판매됐으며, 판매호조에 힘입어 11월

초 200억원이 추가 발행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5만원권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상품권은 관내 농협 등 4개 은행 72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돼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구매하는 모든 판매 금융기관을 합산해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은 법인통장 이체를 통해 연 1천만원

이내 구매할 수 있으며 연 1천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시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가맹점은 10월말 기준 7,500여 곳으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대상이 되는 모든 업소를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내 상품권 가맹점 2곳 이상에서 15만원 이상 소비 시(현금, 카드, 상품권 가능) 1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

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용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지난 21일 조폐공사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상반기 QR 결제 키트 배포 등 준비단계를 거쳐 7월 이전에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종이화폐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는 국화축제장내 도시농업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익산시 국화축제장 내 도시농업관 인기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국화축제장 도시농업관이 귀촌·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도농 공감존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생활원예관은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최정란 교수팀과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전문가반 교육생, 에벌레농장 김훈 대표가 중심이 되어 꾸민 공간으로 생활공간에서 식물을 활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심리적 만족감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산업관광관은 살아있는 누에의 일생 및 가공 산물과 벌

들이 실제로 꿀을 만들고 있는 관찰용 꿀벌, 토마토 등 과채류 수장을 위해 사용되는 뒤영벌, 벌집을 녹여서 만든 밀납초 가공품이 전시되어 있고, 장수풍뎠이, 사슴벌레, 흰점박이 꽃무지 굼벵이 등을 전시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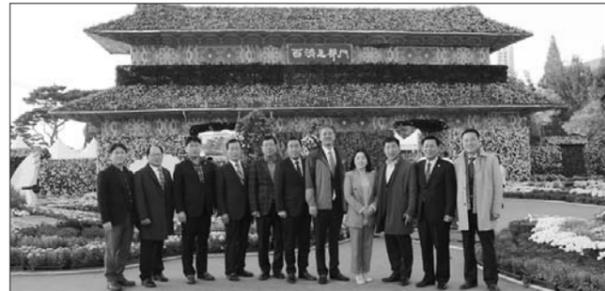
군산시는 고용 및 산업위기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비 31억을 확보해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펼친다.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청년대상 20개 사업에 178명(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 군산사랑상품권 지원사업 등), 일반대상 26개 사업에 830명(청소취약계층 환경정비, 공원녹지정비 등) 등 총 6개 유형 46개 사업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주말 제외) 참여근로자를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군산시민

이며, 1순위는 실직자와 그 배우자, 2순위는 취업취약계층 순으로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차 희망근로지원사업에 현재 74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추가로 1,008명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경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타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4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의는 자매도시인 경북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시의회를 방문했다

## 익산시의회, 경주시의회와 상생 교류 토대 마련

익산시의회의(의장 조규대)는 지난 30일 자매도시인 경북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익산시의의회를 방문한 경주시의회 의원 7명 직원 일행은 익산시의회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해 의

회 청사를 견학하였다. 방문단은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는 국화축제에 참석해 견학하고, 조규대 의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경주시의회와 익산시의의회가 서로 상생 교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라며,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익산=우병희 기자

## 수산물 식품 산업 활성화 부가가치창출 노력

군산시가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 활성화 추진을 민선7기 시정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수산물 처리장시설 사업은 사업비 90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수산물 냉동, 냉장, 제빙, 저방시설을 신속할 예정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연간 3만톤에 이르는 물김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마른김 가공시설이

없어 전량 타지로 유출되던 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마른 김 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원광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 4년간 약 64억원 지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2018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원광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약 64억 원을 지원받으며, 추후 성과에 따라 2023년까지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6년간 총 10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5개 대학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고를 통해 전반기 5개 대학을 포함하여 총 10개 대학이 지원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대부분 수도권 대학이 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추가 사업에 선정된 원광대는 '혁신,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 W-JOBS'를 비전으로 정하고, △스마트 농·생명, △한방헬스케어, △스마트 금융, △문화융합미디어 등 4대 특성과 SW융합 분야를 설정했다.

특히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농·생명 및 한의학 분야의 강점을 소프트웨어 교육에 접목해 혁신을 도모하고, 금융 및 문화미디어

와 같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확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요 사업내용은 SW융합학과 신설, SW전공학과 교육과정 개편, 체험 중심형 비전공자 SW교육, 사회 수요 맞춤형 취업 연계(약정) 교육 등이며, SW학·석사 연계 트랙을 신설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 배출을 위한 SW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WK-SW 프로젝트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외 해외 인턴십 및 R&D 산학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원광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SW기술 개발 및 다양한 전공 분야의 융합 교육을 통해 대학 교육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정정권 교학부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는 SW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며, "지역 청소년 및 주민과 더불어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아우르는 SW교육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W-JOBS형 인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시, 장기임대용지 확보 기업 유치 기반 마련

군산시는 산업구조의 다각화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9년까지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도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100만㎡를 조성해 신산업 관련 주요 기업체의 유치를 위한 투자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올해에는 국비 272억 원을 포함한 총 3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3만㎡의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하게 되며 이는 투자협약 체결 및 입주 희망기업들로 올해 안으로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67만㎡를 추가로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위해 내년에는 국비

552억 등 총 69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100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답보상태에 있는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본 개정안의 내용대로 현재 5%인 임대용지의 연간 임대료가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인 1%로 인하되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해져 새만금산업단지에 많은 국내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